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 6주만에 다시 늘어
- WSJ: 현재 대규모 해고 인가, 고용 붐인가?
- Bloomberg: 경착륙도 아니고 연착륙도 아니다. 부분적인 침체 가능성이 다.

#### [미국 금융]

- Bloomberg: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 80년대 이후 가장 커

#### [뉴욕시]

- CNBC: 맨하탄 렌트비 1월 사상 최고치 기록

#### [미중 무역]

- WSJ: '스파이 풍선' 양국 긴장 상태지만 미·중 무역 늘어
- CNBC: 미국의 수요 약화에 중국 공장 활동도 약화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대형 소비재 기업들, 수익성 없는 제품군 판매 중단한다
- WSJ: 혁신 없어진 빅테크... 시장 지배력 계속 유지될까
- WSJ: 디즈니, 7천명 감원 계획... 55억 달러 절감 효과
- CNN Business: Bed Bath & Beyond, 149개 매장 문 닫는다

#### [보고서]

- McKinsey: CFOs 관련 기사 및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Jobless Claims Pick Up for the First Time in Six Weeks**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 6주만에 다시 늘어

- 연방 노동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19만6천건이었다. 다시 말해 2월 4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건수는 1만3천건 늘어난 것이다. 4주간 평균은 18만 9천 2백50명으로 지난해 4월 말 이후 최저치이다.
-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미국 고용시장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채용 및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필사적으로 직원들을 붙잡고 있다.

### US Jobless Claims Rise for First Time in Six Weeks Still, four-week moving average drops to lowest since April



Bloomberg 기사

### WSJ: Mass Layoffs or Hiring Boom? What's Actually Happening in the Jobs Market

#### 현재 대규모 해고 인가, 고용 불인가?

- 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의 채용은 계속되고 있다.
- 지난 3개월간 일자리가 1백10만개가 추가되고 1월은 무료 50만개 이상이다.
- 신기한 현상이다. 왜냐면 작년에 경기 둔화가 시작되고, 소비자들은 저축액이 줄면서 소비가 후퇴하고 있고, 기업들의 해고 소식, 특히 IT의 해고 소식이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다.
- 그런데 현재 식당, 병원, 너싱홈, 차일드 케어 등의 업종은 팬데믹 마지막 단계가 되면서 드디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기업 해고 숫자를 상쇄하고도 남는 숫자이다.
- 큰 그림을 보면, 의료, 교육, 레저, 접객업과 드라이 클리닝, 자동차 수리점을 포함한 다른 서비스들은 모든 민간 일자리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지난 6개월간 1백19만개 일자리가 채워졌다. 이는 이 기간에 전체 민간 일자리 성장의 63%를 차지한다.
- 반대로 2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어든 기술 집약 업종은 전체 민간업종 일자리의 2%만을 차지할 뿐이다. 이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첫 몇 달씩 2천2백만개 일자리 사라졌다).

WSJ 기사

### Bloomberg: Forget Hard or Soft Landing: Meet the Rolling Recession

## 경착륙도 아니고 연착륙도 아니다. 부분적인 침체 가능성이다.

- 한마디로 경제에 여파를 끼치는 심하지 않은 슬럼프 때문에 대규모 일자리 고통 없이 인플레이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 현재 미국의 경기 위축은 이른바 부분적인 침체(rolling recession)라 부를 수 있다. 한개 산업이 위축되면 그다음에 다른 산업이 위축되고... 예컨대 주택 시장, 그다음에는 제조 산업 순서라는 것. 전반적인 경제가 충격을 받지 않고, 일자리는 대체로 견조한 상황이다.
- 매리마우트 대학 경제학 교수인 송성원 박사는 “한꺼번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 업종이 번갈아 가면서 위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골드만삭스는 1월 큰 폭의 일자리 증가 소식 직후에 향후 12개월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당초 35%에서 25%로 낮추었다. 이 기관은 임금 상승 폭 둔화와 인플레이의 빠른 둔화가 연준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Treasury Yield-Curve Inversion Reaches Deepest Level Since 1980s**

####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 80년대 이후 가장 커**

- 오늘 목요일 현재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을 뛰어넘은 폭이 지난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커졌다. 이에 따라 과연 미국 경제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조치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 2월에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10%였는데 오늘 목요일 4.46%를 보여서 10년물 수익률보다 86 베이시스 포인트 앞선 상태다.
- 지난해 7월 이후 2년 수익률보다 낮은 10년 수익률 역전 현상은 정책 금리 인상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 한편 커브 역전(curve inversions)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게 거래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와 성장에 대해 기대를 약화시키면서 ‘장기 수익률을 압박하고 단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CNBC: Manhattan rents hit an all-time high in January**  
**맨하탄 렌트비 1월 사상 최고치 기록**

- 여전히 강력한 노동 시장과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1월 맨하탄의 중간 (Median) 임대 가격이 4천97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평균(Average) 임대료는 5천 1백 42달러로 전년 대비 13% 상승했다.
- 맨하탄의 아파트 재고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공실률이 겨우 2.5%에 이르고 있다.
- 게다가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며 당분간 높은 임대료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1월 신규 임대는 전달 대비 8%, 전년 대비 9% 증가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났다.

CNBC 기사

[미중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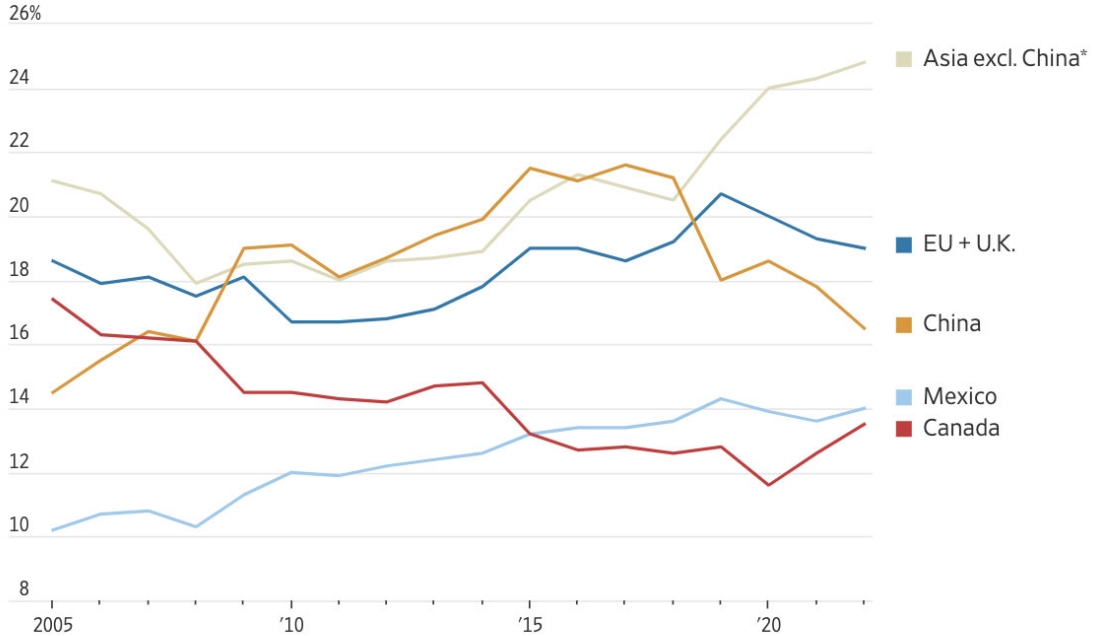
**WSJ: U.S.-China Trade Grows as Spy Balloon Raises Tensions**  
**‘스파이 풍선’ 양국 긴장 상태지만 미·중 무역 늘어**

- 지난주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과 같은 양국 안보 관련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과의 교역은 증가일로에 있다.
- 미국의 중국 수입품은 지난해 5천3백68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6.3% 증가했다. 대 중국 수출 규모는 동기간 대비해 1.6% 늘어난 1천5백38억 달러다.

전체 교역량은 6천9백6억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바이든은 수출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양국의 매우 크게 통합된 무역 및 투자 관계는 매우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 양국간의 정치적인 기복을 견디고 있다”고 진단했다.

Percentage of U.S. goods imports



Note: \*Total of 25 Asian and South Asian nations including India, Japan, South Korea, Taiwan, Thailand and Vietnam; EU includes the current 27 member nations in all years.  
Source: Census Bureau

WSJ 기사

**CNBC: Pressure on China’s factories grows as U.S. demand falls**  
**미국의 수요 약화에 중국 공장 활동도 약화**

- 중국에서 ‘제로 코비드 정책’이 끝난 이후에도 일부 공장들이 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 한 예로 미국의 장난감 회사인 Basic Fun가 협력하고 있는 중국내 모든 공장측은 종업원들에게 구정 연휴 직후에 돌아오지 말라고 지시했다.
- 이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작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치솟으면서 작년 상반기에 팔지 못한 재고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마디로 작년 보다 중국의 고용 사정이 올해 더 좋지 못하다.
- 중국 국내 경제 입장에서 보면, 미국 등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중국내에 광범위한 고용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즉, 숙련된 공장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CNBC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Consumer Giants Like Unilever Sacrifice Sales by Scrapping Product Lines****대형 소비재 기업들, 수익성 없는 제품군 판매 중단한다**

- Unilever, Nestle와 같은 대형 소비재 기업들이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제품 라인의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 소비재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수천 가지에 달하는 제품의 맛과 크기를 제공한다. 수많은 버전의 제품 중 다수는 매출의 1%도 차지하지 못하기도 하며, 회사의 성장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 게다가 인플레이 위기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제품 라인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한 선택으로 보인다. 대신 Nestle는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11% 제품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As Big Tech's Growth and Innovation Slow, Its Market Dominance Endures****혁신 없어진 빅테크...시장 지배력 계속 유지될까**

- 미국 최고의 거대 테크 기업들은 한때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조합이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그냥 사이즈가 크다”. 시장에 충격을 주는 혁신과 성장은 줄어들었고, AI가 다음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애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팬데믹 이후 환율과 공급망 문제, 수요 감소 등으로 수익이 감소하며 비용 절감과 해고, 자사주 매입 등 방어적인 전략을 이어왔다.
- 이들은 모두 여전히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아마존의 배송 시간이 빨라지고 구글의 검색 엔진이 더 유용해진 것은 새롭고 혁신적이기보다 기존 제품에 대한 점진적인 향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장악력을 보이며 지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AI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많은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AI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 AI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성장이 멈춘 거대 기업들에게 원동력이 될지도 모른다.

WSJ 기사

**WSJ: Disney Plans to Cut 7,000 Jobs, \$5.5 Billion in Costs****디즈니, 7천명 감원 계획...55억 달러 절감 효과**

- 새로 복귀한 Robert Iger 디즈니 CEO가 취임 후 첫 실적 발표를 통해 7천명의 일자리를 줄이고 5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전임 CEO의 해임과 2021년 초 이후 40% 이상 하락한 주가에 대한 압박 속에 (회사 내부의) 콘텐츠 결정 리더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스포츠 미디어 비중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기업 개편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디즈니는 디즈니+를 중심으로 구독자가 감소하고 10억 달러가 넘는 사업 손실을 입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Iger CEO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수익화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WSJ 기사

### **CNN Business: Bed Bath & Beyond is closing 149 more stores. See the list**

#### **Bed Bath & Beyond, 149개 매장 문 닫는다**

- Bed Bath & Beyond가 파산 직전까지 치달게 되면서 87개의 매장을 닫는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만에 149개 매장을 추가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 이들은 지난 몇 달간 총 760개에 이르던 매장 중 수익성이 높은 매장을 제외하고 약 400개의 매장을 폐쇄하는 중에 있다.
- 한편 Bed Bath & Beyond는 2억 2천 5백만 달러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부채를 갚기 위해 8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 공모를 진행하면서 간신히 파산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CNN Business 기사

### **[CFOs 관련 기사 및 보고서]**

### **WSJ: Zero-Based Budgeting, Currency Hedges Among the Tools CFOs Can Use to Weather Headwinds**

#### **CFOs는 비용 역풍 막기 위해 ‘제로 기반의 예산편성’에 초점 맞춰**

- 기업체의 CFO는 팬데믹 초기에 ‘제로 기반의 예산 편성’(zero-based budgeting)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비용이 오를때 이를 낮추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예산 편성 방식은 전년도 지출에서 변경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제로 기반의 예산 편성은 새로운 예산 기간 동안에 모든 항목을 재검토한다.
- 즉, 운영비, 부동산, 물류, 판매, 마케팅 부문에서 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일부 CFO는 판매나 일반비, 관리비에 더 주목하기도 하고 다른 CFO는 채용을 늦춘다.

WSJ 기사

### **Fortune: Here's why you'll see more CFO turnover before the year's over** **더 많은 CFOs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 미국에 관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직장에서 사직하는 CFOs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들의 성과에 대해 기업체들이 더 철저히 평가하기 때 문일 수 있고 아니면 경기가 좋았을때의 CFOs가 회사 침체를 극복하기 위 한 관련 업무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 한마디로 그만두는 CFOs는 지난 3년만에 처음으로 늘어나고 있다.

Fortune 기사

**McKinsey: Into the storm: CFOs pivot to managing financial headwinds**  
**CFOs는 재정적인 역풍 해결에 골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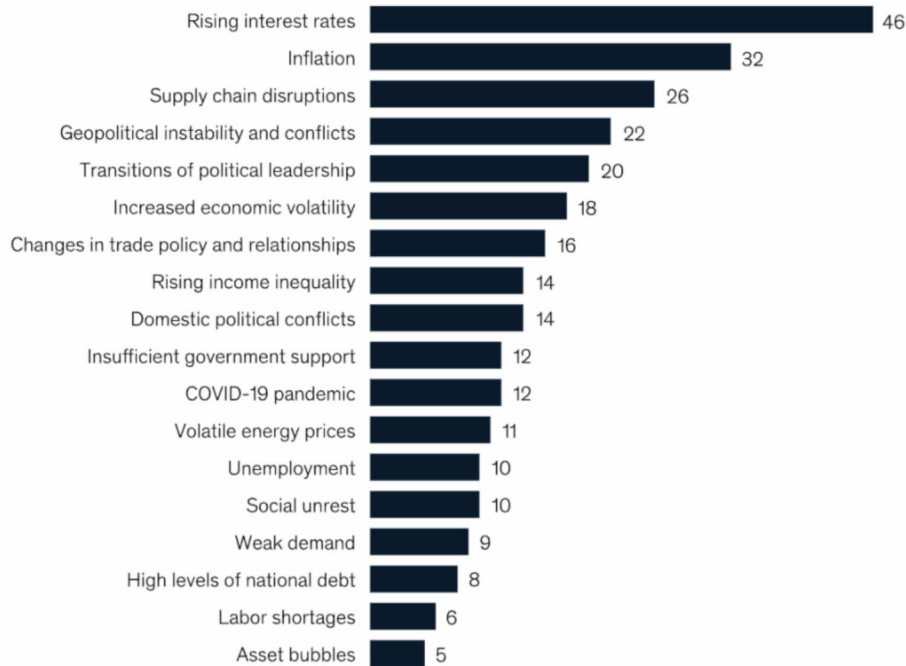
- 맥킨지 글로벌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의 CFOs들은 글로벌 경제가 여 러가지 재정적인 리스크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다.

**1. 팬데믹 여파가 여전히 회사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한마디로, 자본 차용과 관련된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망 불확 실성 여파다.
-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46%가 향후 12개월간 가장 위협은 금리 인상, 33% 는 인플레, 26%는 공급망 불안 때문이라고 답했다.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top surveyed financial leaders' list of potential risks to company growth.**

Financial leaders' top impediments to company growth in next 12 months,<sup>1</sup> % of respon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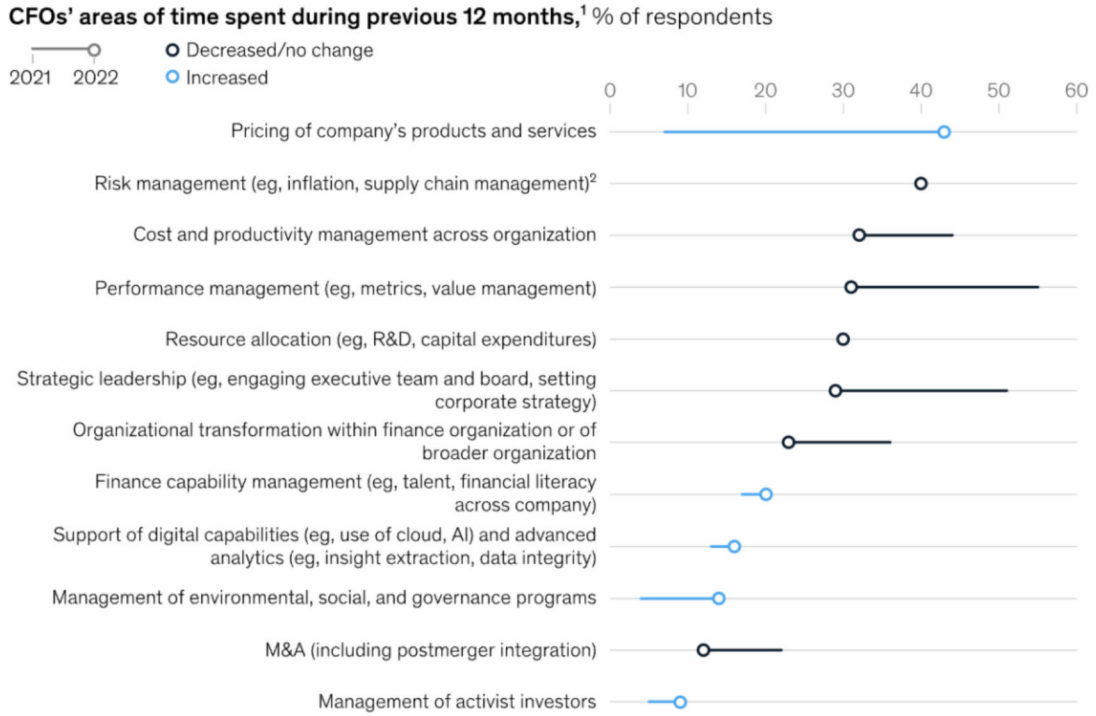
<sup>1</sup>Question: "What, if anything, do you see as the biggest potential risks to your company's growth over the next 12 months?" Respondents were asked to select up to three answers. To adjust for differences in response rates, data are weighted by contribution of each respondent's nation to global GDP. Source: McKinsey Global Survey on the role of the CFO, 215 company financial leaders (including 155 company and unit CFOs) in 34 countries, July 21–Sept 9, 2022

**2. 이에 따라 CFOs의 우선 순위도 뒤바뀌었다**



- 이처럼 가격, 금리, 인플레이에 신경을 쓰다보니 장기적인 전략 목표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한다. 즉, M&A 같은 분야에는 신경을 못쓰고 대신에 제품과 서비스가 적절한 가격에 반영되었는지 더 살피게 된다.
- 특히 향후 12개월동안 우선순위에 두는 분야는 재정 리스크 관리, 현금 관리 및 자본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과 리소스 배분 등이라는 것.

**Over the past year, surveyed financial leaders' priorities show a big shift toward pricing, away from M&A and strategic leadership.**



<sup>1</sup>Includes company and business unit CFOs; in 2022, n = 155; in 2021, n = 187. Question: "In the past 12 months, on which of the following activities or functional areas did you spend most of your time as a financial officer at your company?" Respondents were asked to select up to three answers. To adjust for differences in response rates, data are weighted by contribution of each respondent's nation to global GDP.  
<sup>2</sup>Option not included in 2021 survey.  
 Source: McKinsey Global Survey on the role of the CFO, 215 company financial leaders (including 155 company and unit CFOs) in 34 countries, July 21–Sept 9, 2022

McKinsey & Company

**3. 회사와 CFOs 간의 우선순위도 다르다**

- CFOs의 우선 순위와 그들이 소재한 회사의 우선 순위도 다르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이 답변하기를, 회사들은 전략적인 계획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반면에 자신들은 개인적으로 재정 리스크 관리, 유동성 관리, 리소스 배분 관리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고 답했다.
- 결론적으로 CFOs는 회사의 적절한 전략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분야에 더욱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 Surveyed CFOs and other financial leaders set priorities differently from the way their organizations do.

Priority of company improvement in next 12 months,<sup>1</sup> ranking by respondents  
(1 = top priority; 8 = lowest priority)



<sup>1</sup>Questions: "What are your organization's top functional priorities for the next 12 months?" "How important is it to you, if at all, that your company improves in the following areas?" Response rates were converted to rankings. To adjust for differences in response rates, data are weighted by contribution of each respondent's nation to global GDP.  
Source: McKinsey Global Survey on the role of the CFO, 215 company financial leaders (including 155 company and unit CFOs) in 34 countries, July 21–Sept 9, 2022

McKinsey & Company

McKinsey 보고서 원문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시장 기대보다 더 오래, 더 높은 금리 필요"...연준의 경고"

### 고위인사들 "인플레이와 전쟁, 아직 안 끝났다"...뉴욕증시 다시 하락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리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의 경고가 잇따랐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아칸소주립대 영농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더 먼 길을 가야 한다"며 연준이 통화긴축이라는 현재의 행동 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월러 이사는 "오랜 싸움이 될지 모른다. 현재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